논어 17편 양화 18장 · 원문·풀이

子曰：「惡紫之奪朱也，惡鄭聲之亂雅樂也，惡利口之覆邦家者。」

독음 · 자왈 오자지탈주야 오정성지란아악야 오리구지복방가자

쉬운 풀이(요약) · 그릇된 것이 바른 자리를 빼앗고, 방탕한 음악이 바른 음악을 흐리며, 말재주가 나라와 집안을 뒤엎는 것을 미워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惡 나쁠 악 악 / 紫 자주빛 자 자

之 갈 지 / 奪 빼앗을 탈 탈 / 朱 붉을 주 주 / 也 어조사 야

鄭 나라이름 정 정 / 聲 소리 성 성 / 亂 어지러울 란 란 / 雅 아담할 아 아

樂 즐길 락 / 利 날카로울 리 리 / 口 입 구 구 / 覆 뒤집힐 복 복

邦 나라 방 방 / 家 집 가 가 / 者 놈 자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